

목포 달맞이공원·평화광장 환경보존회 뒀다

자치위원장 등 주민들로 구성
환경보존·지역 개발 두 토끼 잡기
매달 두 번째 토요일 환경정화 활동



목포 주민들이 지난 17일 '달맞이 공원 평화광장 환경보존회' 창립총회를 열고 지역 친수공간인 달맞이공원과 평화광장의 환경 보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목포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달맞이공원과 평화광장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일대 인근 주민들이 환경보존회를 창립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달맞이 공원 평화광장 환경보존회' (이하 환경보존회)는 달맞이공원과 평화광장 환경 보존을 위해 보존회를 최근 설립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달맞이공원과 평화광장은 목포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꼽히지만, 실베장어 잡이와 낚시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회원 대부분은 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들로 구성됐다. 환경 보존과 목포 지역발전을 목표로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함께 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구역 내 시설물 및 수목의 훼손에 대한 보호 및 신고 ▲근린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창출 및 건의 ▲구역 내의 오물 및 쓰레기 제거를 위한 봉사활동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근린공원의 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협조 및 홍보 등이 있다.

권상용 환경보존회 회장은 창립 인사말을 통해 "목포의 친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민선

7기 때 달맞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드려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우리 환경보존회는 회원 한 명 한 명이 목포의 환경지킴이라는 마음이 짐으로 파수꾼이 돼 이 일대 환경보존은 물론이고 나아가 목포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평화광장에서는 목포 해상 W쇼와 같이 오직 목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벌어진다"며 "뮤지컬 공연, 바다 분수 쇼, 불꽃 쇼가 함께하고 달맞이공원은 시민의 쉼터 휴식 공간으로 산책로 연결돼 있어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줄 의무 또한 가지고 있어 환경보존회의 활동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강용래 환경보존회 고문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보존회가 창립돼 활동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회원들이 현역일체가 돼 목포의 환경을 지키며 보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쾌속 카페리선 취항 진도항 제주 여객수송 거점항 발돋움 최단거리 애월항로 추가 개설

진도항이 제주 여객수송 거점 항로로 발돋움하고 있다.

진도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씨월드고속훼리(주) 소속 쾌속 카페리선 산타모니카호 취항에 이어 진도항-애월 간 추가 항로가 개설된다.

지난해 진도항~추자도~제주항로를 취항한 3500t 산타모니카호는 1년 만에 여객 24만명, 차량(승용차 기준) 4만7000대를 수송했다.

이 항로는 해상 최단 거리(95km)이자 운항 시간(90분)도 최단이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산타모니카호의 성공적인 취항에 힘입어 진도항~애월간 신규 항로를 추가 개설한다.

2025년 9월 취항을 목표로 여객정원 600여명, 차량 140대(자동차 40대·승용차량 100대)를 수송할 수 있는 1만t급의 선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 선박은 1일 왕복 2회 운항한다.

산타모니카와 카페리 취항 시 진도항은 전국에서 제주기점 선박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에 있어 목포항과 완도항에 이어 제3위의 물동량을 수송하는 주요 항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애월 관광지과 물류의 최단 접근로 확보로 지역관광 물류 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회장은 "진도-애월간 카페리의 투입은 복합해상 운송체계 구축으로 전남 서부권 관광, 물류 중심항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안군 농번기철 맞아 노인 일자리 사업 일시 중단

무안군이 농번기를 맞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달부터 2개월간 중단한다.

양파-마늘 수확기를 맞아 농가 일손 부족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무안군은 설명했다.

무안군은 올해 2337명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과 노인회 무안군지회, 노인회 전남연합회, 무안군중합사회복지관, 무안시니어클럽 등 5개 수행기관이 모두 3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번기 노인 일자리 사업 탄력적 운영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귀농귀촌인 가정에 기념수 심어요”

영암군 '한평정원' 사업
유실수·이름표 등 지원

영암군이 '귀농귀촌인 기념수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평정원'의 부제가 붙은 이 사업은 영암만의 특색을 가미한 귀농·귀촌 환경 정책이다.

기념수를 분양해 영암에 전입한 세대를 환영하고, 귀농·귀촌한 주민이 자기 집 한평정원에서 기념수를 가꾸며 자신만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화인 매화 등 유실수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주택은 있지만 살고 있지 않는 출향민 등

에게도 폭넓게 적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택소재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6월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에서 선정해 기념수와 함께 나무에 붙일 이름표도 만들어준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주민을 환영하고, 주민은 자기만의 역사를 갖고, 지역 곳곳에 펼쳐진 한평정원은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발하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특색을 살린 귀농귀촌 정책으로 많은 이들이 영암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이 최근 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전교육'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업인 교육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425명 어가 배치

어업인 안전 보험료 전액 지원

완도군이 다시마 수확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425명이 최근 어가에 배치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한 뒤 마약 검사와 소방 안전교육, 어업인 사전교육 등을 거쳐 현장에 투입됐다.

완도군은 필리핀·라오스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추진했다.

군은 지난 3월 수요조사를 벌여 다시마 수확기를 맞은 금일읍 어가에 인력 300여 명을 배치했다.

이달 현재 완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825명으로, 지난해(400여 명)의 2배

수준이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 등 3개국 768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근로자 5개국 57명으로 구성됐다.

완도군은 고용주 부담을 덜기 위해 수협 '어업인 안전 보험' 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완도금일수협·완도소인수협 협조를 받아 외국인 등록 전이라도 근로자 이름의 임금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해부터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농어의 일손 부족 등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 인권 사각지대 해소 5개년 계획 수립

신안군이 2027년까지 인권 행정의 기틀이 될 '제1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신안군은 2021년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난 8개월 동안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군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안군 사업추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인권제도 기반 마련, 인권교육강화, 인권상담 및 구제 체계구축, 생활속 인권 문화 확산, 취약계층 인권 증진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

됐다.

인권 친화적 행정 추진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인권행정 업무협의회를 구성해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신안 맞춤형 인권 프로그램도 개발해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통해 생활 인권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민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상담과 권리 구제를 받는 인권상담실을 운영, 군민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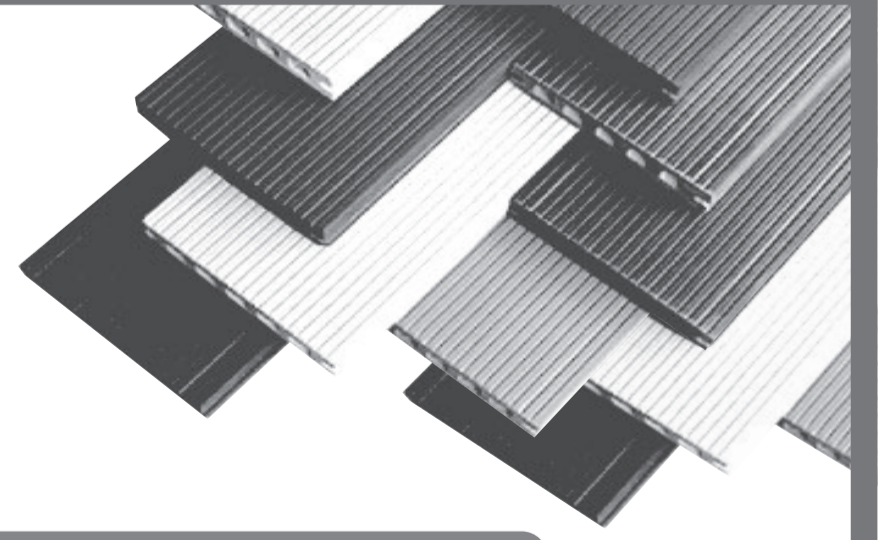
취약계층 인권 증진을 목표로 인권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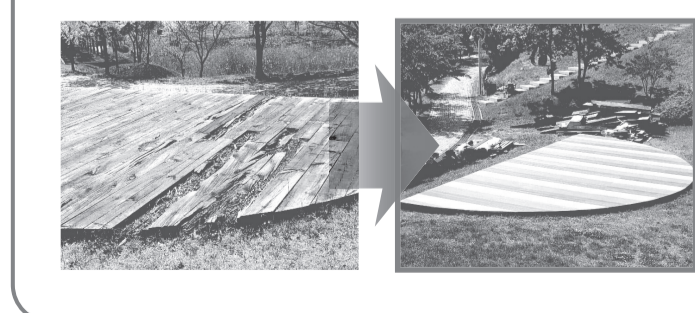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